

‘고척 참사’ 오나

WBC 대표팀 네덜란드에도 겨 예선 탈락 위기 선수 선발 잠음·동기 부여 부족 ‘예견된 참사’

대한민국 야구 국가대표팀에는 세 번의 국제대회 ‘참사’가 있었다. 2003년 ‘삿포로 참사’와 2006년 ‘도하 참사’, 2013년 ‘타이중 참사’가 그것이다.

한국은 2003년 일본, 중국, 대만과 삿포로에서 맞붙은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에서 1승 2패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티켓을 놓쳤다.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에서는 출전 끝에 동메달에 그쳤고, 2013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1라운드 탈락은 ‘타이중 참사’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리고 한국 야구는 또 한 번의 참사 위기에 직면했다. 한국은 7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WBC A조 예선 네덜란드전에서 0-5로 졌다. 6일 이스라엘전에 이어 이를 연속 패한 한국은 2연속 조별 예선 탈락 위기에 처했다.

앞서 한국 야구가 세 차례 참사를 겪은 공통적인 원인은 선수 선발 난항과 동기부여 부족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도 반복됐다.

대표팀은 선수 선발 과정에서 끊임없이 잠음을 만들었다.

대표팀은 수술을 앞뒀던 이용찬과 정근우의 몸 상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최종 엔트리에 포함했고, 결국 대체 선수를 뽑아야 했다.

추신수와 김현수 등 메이저리거가 구단 반대로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한 건 불가피한 일이었지만, 오승환 합류 과정에서 빚은 혼선은 대표팀의 정통성 논란을 낳았다. 이대은은 실전에서 제대로 던지지 못할 몸 상태인데도 선발됐고, 지난해 KBO리그 구원왕 김세현은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끝내 승선하지 못했다.

동기부여도 예전만 못했다는 평가다.

2006년 WBC는 박찬호와 김병현 등 메이저리거를 필두로 꾸릴 수 있는 최상의 전력으로 대회에 임했다. 덕분에 4강 신화를 이뤘고, 출전 선수는 병역 혜택까지 받았다. 이후 WBC는 병역 특례 대상에서 빠졌고, 선수 사이에서는 ‘굳이 무리하게

몸 만들어 출전할 필요까지 있겠는가’라는 회의론이 등장했다.

이제 선수에게 애국심만을 강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고, KBO는 이번 대회에 앞서 보상책을 마련했다. KBO는 출전 선수의 동기부여를 위해 국제대회 성적에 따라 보상해주는 FA 등록일수를 성적과 무관하게 소집 기간 모두 보상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당근’도 근본적인 실력 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KBO리그는 최근 극심한 타고투저에 시달리는데, 정작 WBC 2경기 19이닝 동안 득점은 1점뿐이다. 여기에 1.2회 WBC에서 한국야구를 빛냈던 김민석 감독도 최근 현장을 떠난 지 오래된 탓인지 2연패를 당하는 동안 어떤 돌파구도 마련하지 못했다. 한국 야구가 한 단계 발전하려면 이번 WBC에서 드러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한편 한국은 9일 6시30분 대만과 A조 예선 최종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지난 7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한민국과 네덜란드의 경기. 3회초 1사 1,2루에서 서건창의 병살타로 공격이 마무리되자 한국 선수들이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동성고에서 배터리로 호흡을 맞췄던 KIA의 고졸 2년차 포수 신범수(왼쪽)와 ‘루키’ 외야수 김석환이 나란히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1군 무대 라인업 나란히 이름 올리자”

또 다른 동행 꿈꾸는 ‘아기 호랑이’ 신범수·김석환

동성고 배터리 호흡...김석환 외야수 전업으로 새 도전

아무진 타격의 ‘아기 호랑이’ 신범수와 김석환이 또 다른 동행을 꿈꾼다.

KIA 타이거즈의 신범수는 고졸 2년 차 포수다. 출발은 타이완 퓨처스 캠프였지만 마무리는 오키나와 캠프다. 김기태 감독의 호출을 받고 지난 2월 21일 1군 캠프로 장소를 옮긴 신범수는 여전한 방망이 실력을 선보였다.

신범수도 인정하는 타격 잠재력을 가진 두 ‘아기 호랑이’는 한때 ‘찰떡 배터리’였다. 신범수와 김석환은 동성중-동성고에서 함께 한 1년 선후배 사이다. 1학년 때부터

동성고 안방을 맡았던 신범수는 주장으로도 활약했다. 김석환은 ‘대형투수’로 기대를 모았던 자원이었다. 1학년 때부터 프로 구단 스카우트들은 좌완 김석환을 주목했다.

일찍부터 실력 있는 동성고 배터리로 눈길을 끌었던 두 사람. 그러나 김석환이 3학년 때 외야수로 사실상 전업을 하면서 프로에서는 야수 선후배로 만나게 됐다. 자연히 필승 배터리로 활약하자던 두 사람의 꿈은 ‘나란히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자’ 것으로 바뀌었다.

신범수는 “마무리 캠프 때 너무 내가 못했는데 다시 기회를 얻어서 기분이 좋았다. 작년 스프링 캠프 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주어진 것 하기도 바빴는데 지금은 더 여유가 생겼다. 무조건 잘해야겠다는

마음보다는 내 위치를 생각하면서 내 것을 하자는 마음으로 캠프를 치렀다”고 이번 캠프를 돌아왔다.

지난 캠프에서 신범수는 타격으로 눈길을 끌었지만 경험 부족의 수비로 1군 무대를 밟지는 못했다.

함께 캠프에서 뛰었던 동기들이 큰 무대에 오르는 것을 부러운 눈으로 지켜봤던 신범수는 “마음이 급했는데 김상훈 코치님이 탄탄하게 준비 잘해서 (1군에게) 가서 안 내려올 실력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신 게 많은 도움이 됐다. 송구 등 아직 부족한 게 많으니까 준비 더 잘하고 자신 있게 하자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코치님들과 선배들이 마음껏 해보라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해주셔서 즐겁게 훈련했다”고 말했다.

잘 아는 후배와의 동행도 동기부여가 된다.

신범수는 “서로 잘 아고 편한 후배라서 이야기를 많이 했다. 석환이도 목표가 있을 것이고 나도 목표가 있는데, 함께 뛰는

것이 또 다른 목표다. 언젠가 1군 라인업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는 날이 올 것이라며 서로 격려하고 훈련을 했다”고 웃었다.

김석환에게 신범수는 등지한 ‘캡틴’이자 친구 같은 선배다. 캠프된 팀에서 좋아하는 선배와 다시 뛰게 된 김석환은 “투수를 했을 때 형이 리드를 잘해주었다. 야수로서도 리더십있게 잘 이끌어주었다. 동료들도 형을 많이 믿고 따랐다. 리더십이 좋은 선배다. 잘 아는 선배가 같은 팀에 있어 마음이 편하다. 범수형과 다시 경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고등학교 때와 다른 게 많다.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훈련하는 게 많이 달랐다. 타석에서 보는 공도 차원이 달랐다. 특히 포크볼이 장난이 아니었다(웃음)”며 “선배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다. 김주찬 선배님 배팅하는 것을 보고 감탄을 많이 했다. 많은 걸 배우고 느낀 캠프였고 자신감도 생겼다. 꾸준한 선수가 되는 게 목표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비밀병기 ‘이세온’

헥터 문신 ‘NOESI’ 타인이 보면 ‘ISEON’ 한국 무대 2년차...용병 적응 도우미役 ‘톡톡’

‘호랑이 군단’ 마운드에 비밀 병기가 있다?

KIA 타이거즈의 스프링 캠프가 마련된 일본 오키나와 킨구장에서는 종종 이세온을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특히 투수조 훈련 시간에 이세온이라는 이름이 자주 언급된다.

이번 KIA의 스프링 캠프 선수단 명단에는 이세온이라는 이름이 없다. 전체 선수단 명단을 뒤져봐도 이세온이라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세온이라고 부르며 대답을 하는 선수가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KIA의 에이시 헥터 노에시(사진)다.

이세온이라는 한국 이름을 얻게 된 헥터 노에시. 배요한 트레이닝 코치는 “노에시라는 이름 때문에 이세온이 됐다”고 힌트를 주었다.

헥터 노에시는 왼팔에 문신을 하고 있다. 자신의 이름도 새겨두었는데 ‘NOESI’라는 글자가 팔꿈치 부위부터 세로로 쓰여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반대로 ‘ISEON’으로 읽히기도 한다. 발음 그대로 사람들은 헥터를 이세온으로 부르고 있다.

헥터는 “지난해 라커룸에 내 이름이 반대로 쓰여 있었다. 그때부터 이세온이 됐다”며 이세온이라는 이름에 숨겨진 사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로저 버나디나, 팻 딘이 새로 팀에 합류하면서 KIA 2년 차 헥터는 외국인 선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팀 문화와 상대방의 전력 등을 알려주고,



쉬는 날 함께 골프를 치러 가기도 하는 등 새 외국인 선수의 적응을 돕고 있다.

성공적인 한국 데뷔 시즌을 보낸 뒤 맞은 두 번째 캠프라 여유와 장난기도 많이 늘었다. 이세온이라는 이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KIA 선수가 된 헥터 노에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세리나, 무릎 부상 3월 대회 불참...1위 내쫓

세리나 윌리엄스(미국)가 무릎 부상으로 3월 출전 예정이던 2개 대회에 불참하면서 여자테니스 세계 1위 자리가 바뀌게 됐다.

현재 세계 1위 윌리엄스는 랭킹 포인트 7780점을 기록, 7405점의 케르버를 앞섰다. 그러나 윌리엄스는 지난해 BNP 파리바오픈에서 준우승하며 받은 랭킹 포인트 650점이 올해 대회가 끝나면 랭킹 포인트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7130점이 된다.

올해 1월 끝난 시즌 첫 메이저 대회 호주오픈에서 우승하며 세계 1위에 복귀한 윌리엄스는 이로써 20일 발표되는 순위에서 다시 1위 자리를 안젤리코 케르버(2위·독일)에게 넘겨주게 됐다.

BNP 파리바오픈은 8일 개막해 19일까지 이어지고, 마이애미오픈은 21일부터 4월 2일까지 열린다.

윌리엄스는 BNP 파리바오픈 대회 조직위원회를 통해 “왼쪽 무릎 부상으로

최근 훈련을 할 수가 없다”고 불참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케르버는 올해 대회에서 첫판에 탈락하더라도 지난해 이 대회에서 2회전 탈락으로 받은 점수 35점만 빠지므로 윌리엄스를 앞서는 것이다.

지난해 9월 US오픈 우승과 함께 세계 1위에 처음 올랐던 케르버는 올해 호주오픈이 끝난 뒤 1위 자리를 윌리엄스에 내줬다가 2개월 만에 되찾게 됐다.

/연합뉴스